



3면

"혁신으로 전북 도약 이끌 것"

전주매일

2022년 8월 3일 수요일 (음 7월 6일) 제307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야천변 2길 6번지

“민생경제 살리기 모든 역량 집중”

김관영 도지사,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보고서

“즉시 시행 가능 발굴아이디어 정책 효과 높여 달라”

주기적인 벤치마킹 등 창의·혁신적 시도 중요성 강조

김관영 도지사가 '민생경제 살리기'를 모든 부서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보고에서 김관영 도지사·의 경제 전반에 대한 여러 상황

을 공유하며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에 두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전북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

업을 유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지원, 청년 지원, 창업 생태계 혁신 등 도민체감형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추진계획과 관련 "기업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즉시 시행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는 5대 대기업 계열사 유치와 금융도시 육성으로 양질의 일

자리를 창출하고 금융 관련 연관산업 집적화로 전북 경제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주요 산업별 대기업 중심의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산업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유치를 위해 자동차, 신재생, 농식품, 문화·관광 등 도 전략 산업별 유치기업을 선정해 집중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존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투자이행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지원활동을 벌이는 한편 추가 투자 시 전북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 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일원에 금융관련 시설인프라 개선, 금융 혁신생태계 육성 등을 통해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 육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금융센터 건립을 위해 우선 금융전문가, 관계기관 임원 등을 중심으로 금융센터 조성 TF를 운영하여 추진시 우려사항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기존 업무목해방이 아닌 팀장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김 지사와 토론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 지사는 "발굴한 아이디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8월부터 즉시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 반영 및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시행 여부 등을 조속히 검토해 정책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아이디어 발굴은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월 1회 정도는 타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2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세계잼버리 준비상황 공유

내년 개최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표단장 회의
오늘부터 6일까지 부안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서
45개국 대표단장 108참석, 현장점검·질의응답 진행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1년 여를 남기고 조직위원회가 준비상황 점검에 나선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조직위원회)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Hoc(Heads of Contingent) STUDY VISIT(대표단장 회의)' 행사를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부안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세계스카우트연맹 45개 회원국 108명의 대표단장들이 참석하며, 세계잼버리 주요 행사내용과 분야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아영장) 점검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 대표단장들은 내년에 개최되는 세계잼버리에 각국의 참가자들을 인솔하여 오는 대표단장들로서, 이번 대표단장 회의에서 제공되는 행사정보와 안내사항들을 각 회원국 참가자들에게 전달해 내년 세계잼버리 참가를 준비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당초 계획했던 프레젠테이션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

소된 상황에서 내년 세계잼버리에 참가하는 회원국 대표단장들이 세계잼버리가 열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조직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회의는 첫날 등록을 시작으로 둘째 날에는 세계잼버리 분야별 준비상황 설명, 현장(영지) 점검을 실시하며, 셋째 날에는 전북도 주관으로 pre-post activity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4일 차에는 분야별 질의응답을 끝으로 회의를 마치게 된다.

조직위원회 최창행 사무총장은 "이번 대표단장 회의를 통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내용과 준비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각 회원국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해외에서 많은 스카우트 대원들이 기대를 갖고 내년 잼버리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170여 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가장 큰 스카우트 국제행사로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새만금 잼버리 부지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나라꽃 무궁화 완주축제” 27~28일 개최

완주 고산문화공원에서

완주군이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고산문화공원(무궁화테마식물원)에서 무궁화 축제를 연다.

2일 군에 따르면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나라꽃 무궁화 완주축제'는 산림청이 지정한 무궁화 전국 축제 지역행사로 열린다.

주요 행사는 무궁화 나누어주기, 그림대회, 체험행사, 보물찾기, 축하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라꽃 선양과 대중화를 위해 기획된 축제로 완주에서 생산한 무궁화 묘목 200여본을 무료로 나눠준다.

아울러 축제가 진행되는 무궁화테마식물원에서는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180여종의 무궁화 품종을 감상할 수 있다.



어린이 무궁화 그림대회는 유치원생, 초등학교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당일 현장접수로 가능하다. 입상작들은 무궁화전시관에 전시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도, 도시재생뉴딜 추진실적 평가 '우수'

올 하반기 광역 공모 국비 300억원 확보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국토부가 추진한 2021년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매년 국토부 공모 및 광역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광역 공모의 경우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당해연도 공모 예산 규모(실링)를 책정한다.

도는 그간 국비 집행률 제고, 지원사업 해결 방안 마련 등 사업관리에 주력해 '21년 예산집행 집행실적 전국 2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그 결과, 올 하반기 예정된 광역 공모 국비(실링)를 기본배정 120억원, 쇠퇴도·신규 수요 정도 120억원에 인센티브 60억원을 합산한 총 300억원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도는 이번 인센티브 확보를 통해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행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그간의 중심시가 지형, 일반 근린형 등 7개 사업 유형을 지역특화형 등 4개 유형으로 통합하고 공모 선정 및 사업관리에 광역 시도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정책에 맞는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형 사업 개발 전

문가 사진, 자문 등을 통하여 전국적 경쟁력이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다수의 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올해 공모 일정은 8~9월 중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자문 후, 9월 중순 공모 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평가, 국토부 실무위 검토 및 특위심의를 거쳐 12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여전히 구도심 쇠퇴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비 확보는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